

노인에 맞는 금융 투자

“수익률 보다 마음 편하게 하는 상품을”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세계 주가는 물론 우리나라의 주가도 그 향방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근까지 1,800선을 유지했던 KOSPI 지수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1,700선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 또한 등락폭이 심해 알뜰살뜰 모으고 아낀 노후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게 현실이다. 안정형 상품인 은행 등의 정기예금은 가입해봐야 5% 수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투자할 맛이 나지 않는다.

그동안 고수의 상품에 길들여진 투자자들은 예전 같이 다양한 고수의 상품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를 하고자 해도 감히 엄두가 나질 않는다.

자신의 금융체질 맞춰야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 상황에서 노후자금은 어떻게 굴러야 효과적일까?

우선 변액연금을 들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주가 급락기에 향후 주식의 상승이 기대되며 MB시대의 공약사항으로 보아 경제가 나중에서 발전한다는 전망이 있을 때에 권할 수 있는 상품이다. 흔히 변액이라는 단어가 들

어가면 주식을 이용한 금융상품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나 상품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다양한 투자수단과 금융혜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료를 투여하면 특별계정으로 이체가 된다. 이 특별계정은 펀드에 투자가 되는데 이때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채권형 등 다양한 펀드로 투자된다. 국내증시, 해외증시의 시장상황을 보고

능이 있다. 다음으로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을 들 수 있다. 변액연금처럼 주식과 연계가 되지 않지만 원금보장기능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최저납입 기간 운용) 및 보험기간은 종신 동안 유지되는 강력한 투자상품이다. 선택에 따라 연금 옵션으로 전환도 가능한 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자에게 권할 만한 상품이다. 10년간 유지시 보험자의 비교세, 보험료 중도인출기

적 연령이 높은 경우 등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경우 유용하다.

정기예금·적금 이용도

투자금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는 금융기관의 고유상품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적극적인 투자방법이 아닌 소극적인 수단으로 단지 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원금의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수적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자금운용 수단이다.

이와 함께 급여통장이나 일반통장의 경우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가 1%를 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럴 경우 거래 은행에서 ‘스윙 계좌’를 개설해놓으면 5%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즉 통장에 일정 이상의 잔고가 쌓이면 그 기준액이 넘는 돈은 자동적으로 스윙계좌로 이체, 거래 은행이 그 자금을 운용해 5% 전후의 이율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나이가 들수록 심리적인 불안증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노후 금융상품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금융체질에 맞추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변액연금 - 향후 주식 상승 기대될 때 유리

변액유니버설보험 - 적극적 투자자에 좋아

연금보험 - ‘복리효과’ 보수적인 성향 유용

1년에 약 12차례의 펀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변액연금의 가장 특이한 제도는 원금보장 기능이다. 이는 연금계사전(제1보험기간)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보장한다. 10년간 보험계약이 유지가 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교세의 혜택도 있다. 그 외 변액연금 내의 펀드수수료가 일반의 펀드수수료보다 저렴하며, 보험료 적립부분에 대한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가능 등 다양한 기

능 등의 기능이 있다. 세번째는 연금보험이 있다. 변액연금은 주식과 연계가 되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사의 내부규리에 의해 운용이 된다. 단, 금리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10년간 유지시 보험자의 비교세, 보험료 중도인출기능(보험사에 따라 연금지급시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함) 등의 기능이 있다. 이는 단순히 복리효과를 노린 비교



고유가로 인해 주가 변동이 커짐과 동시에 각종 펀드의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노후 투자는 수익률에 대한 비중보다는 자신의 금융체질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대피해 노인 쉼터’ 시·군에 1곳씩 신설

전남도 ‘적극 보호’

노인학대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 노인 쉼터’ 전남도내 시·군에 1곳씩 신설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피해 상담은 2천여건에 달하며 이중 실제 학대로 인정돼 신고된 것은 일반사례 187건, 학대사례 148건 등 335건이다.

이는 전년도 신고건수 312건에 비해 23건이 늘어난 것으로, 노인학대로 인한 피해자 보호요청도 더불어 많아지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문기관은 전남지역에서 순천

의 ‘전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한 곳 뿐이다. 전문보호기관이 부족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의 일시 보호를 위해 22개 일선 시·군에 1곳씩 ‘학대피해 노인 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학대받는 노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한 곳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일선 시군에 설치된 노인 쉼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실버 라운지

주 리 애



“이 지구별에 여행 와서 잘 보내고 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중 가장 보람 있고 즐거웠던 것은 지난 1년간 복지관에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넘쳐나는 미지의 정보 바다 속에서 수많은 교양과 삶의 지혜를 얻어 생의 소중한 자산을 만든 이 시간이야말로 내 여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인숙·61·지산2동)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74·산수2동) “세상이 바뀌고 문명이 발달해 신비의

컴퓨터, 젊은이들의 전유물 아니다

상자를 만나 지난 1년 동안 나이를 망각하고 신이 나서 세월 간질 모르고 지냈습니다. 배우기를 망설였던 시간만큼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배운 컴퓨터 교육이었습니다.” (안이레·77·봉명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정보화교실을 수료하신 어르신들이 복지관 홈페이지에 올린 수료 후기들이다.

노년기의 30~40년간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정보화교육인 컴퓨터 교실에 문을 두드리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60~80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하기에 캠퍼스 탈출을 위해 정보화교실에 문을 두드리는 어르신들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문화의 격차를 해소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노년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다도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할지라도 과정을 마치게 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 이루어 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의 향상은 노년기의 그 어떤 보상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체험이다.

광주는 고행자 및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교실을 시 및 자치구에서 6개소, 복지관 23개소, 기타 2~3곳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 한 복지관의 경우, 어르신들이 컴퓨터 교실 강좌를 들으려면 대기자가 수십 명이나 돼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지 모를 정도다. 이제 컴퓨터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령화 속도와 맞는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기업이나 봉사단체 등도 노인 컴퓨터 교육을 한층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광주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

Advertisement for '생활안내 광고' (Life Guide Advertisement) featuring a cartoon cat and text about low-cost advertising and high effectiveness.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and '행정고시학원' (Administrative Exam Academy), listing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농산물품질관리사'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pecialist) exam, including details about the exam date and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공무원 완전 대비' (Public Servant Complete Preparation) exam, listing various exam types and preparation services.